

Figma: UI/UX design and prototyping tool

프로토타이핑: 코딩 전에, 어떻게 동작하는지 볼 수 있도록 하는 작업

1세대: Photoshop

2세대: Sketch for Mac

3세대: Figma

Figma가 좋은 점

1. 개인이 이용할 경우 사실상 무료
 - 3개의 프로젝트 무료로 이용 가능
 - 2개의 에디터까지 30일 버전 히스토리 제공
 - 유료버전을 쓴다해도 한달에 12\$밖에 안 냄
2. 설치가 필요없는 브라우저 기반

** 먼저 완성된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준다

클릭하면 척하고 넘어감

마우스 올리면 hover기능작동

클릭하면 애니메이션과 함께 해당화면 나옴

이 수업에선 다음을 가르칩니다.

1. 피그마 툴을 어떻게 사용하나 (10% 중요도)
2. ui 디자인의 기본개념 (90% 중요도)

즉, 툴은 배우면 금방 하는것이고 중요한 건 ui 디자인의 기본 개념.

* 웹 디자이너는 개발자와는 분리된 하나의 직업이다. 아예 다른 영역이다. 즉, 디자인을 배운다는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린 그렇기에 툴만 다뤄보는 선에서 끝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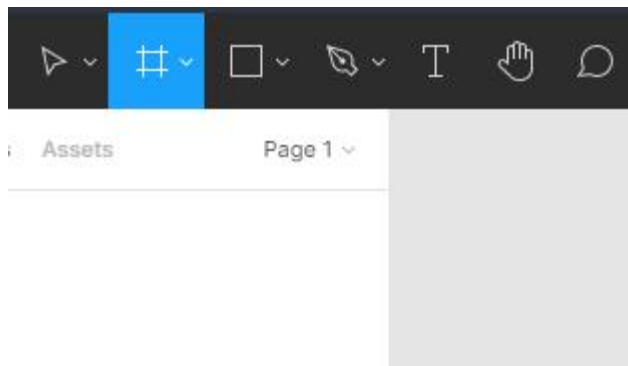
https://www.figma.com/team_invite/redeem/FwC3fc1mtGykc78qfic6mW

콘솔로그 피그마 초대링크

일단 회원가입하고 들어가서 플러스아이콘 눌러보자.

보면 뜬금없는 회색 바탕이 나올것

일단 프레임 눌러보자.



오른쪽에 뭐가 뜰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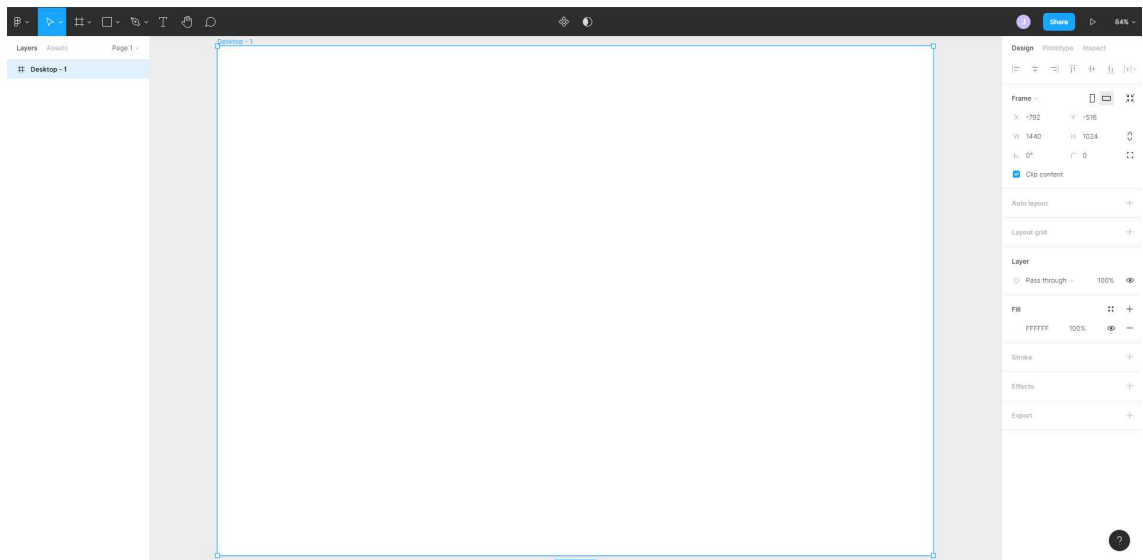
Design	Prototype	Inspect
Frame		
▼ Phone		
iPhone 11 Pro Max		414×896
iPhone 11 Pro / X		375×812
iPhone 8 Plus		414×736
iPhone 8		375×667
iPhone SE		320×568
Google Pixel 2		411×731
Google Pixel 2 XL		411×823
Android		360×640
▶ Tablet		
▶ Desktop		
▶ Presentation		
▶ Watch		
▶ Paper		
▶ Social media		
▶ Figma Community		

일단 나의 경우엔 데스크톱사이트를 만들것이기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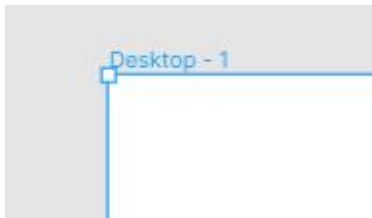
데스크톱 클릭해보자. 물론, 실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면 요즘 시대엔 당연히 모바일을 먼저 생각하겠지만, 일단은 피그마 교육의 목적이기 때문에 데스크톱으로 한다.

그냥 데스크톱 누르겠다. 해상도는 1440*1024

그럼 프레임이 만들어질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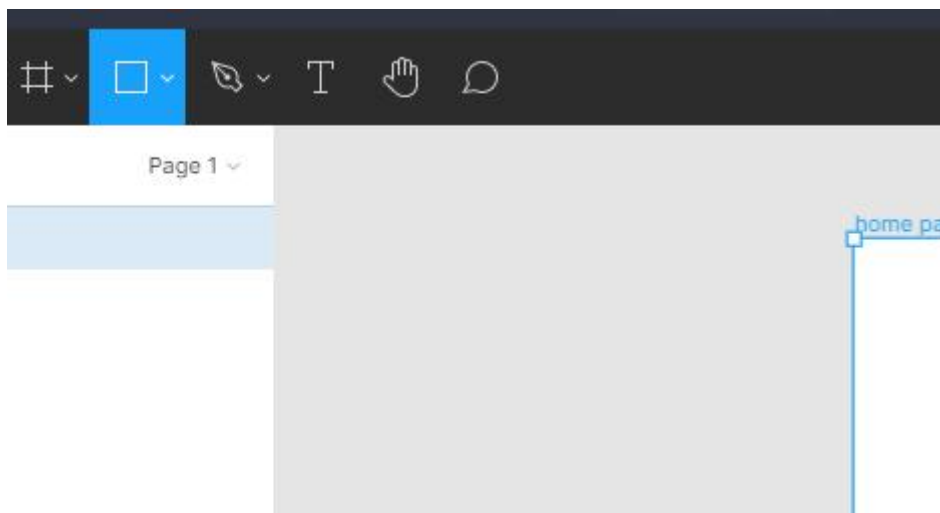


ctrl + 마우스휠 하면 커지고 작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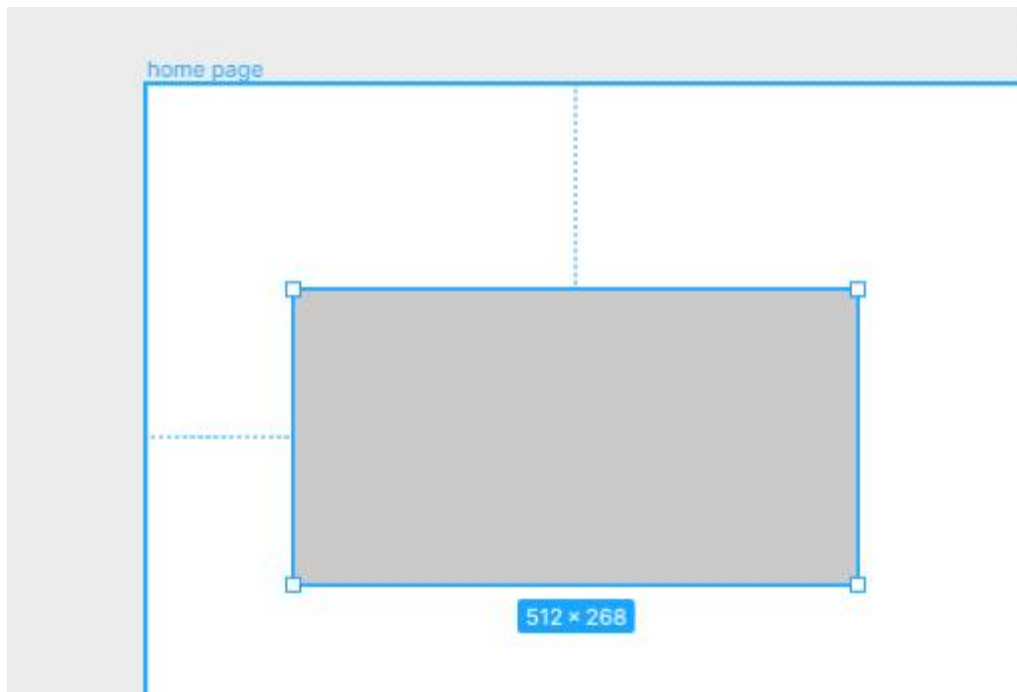


여기 보면 프레임 이름이 있는데, 더블클릭해서 바꿔줄 수 있다. home page로 바꿔주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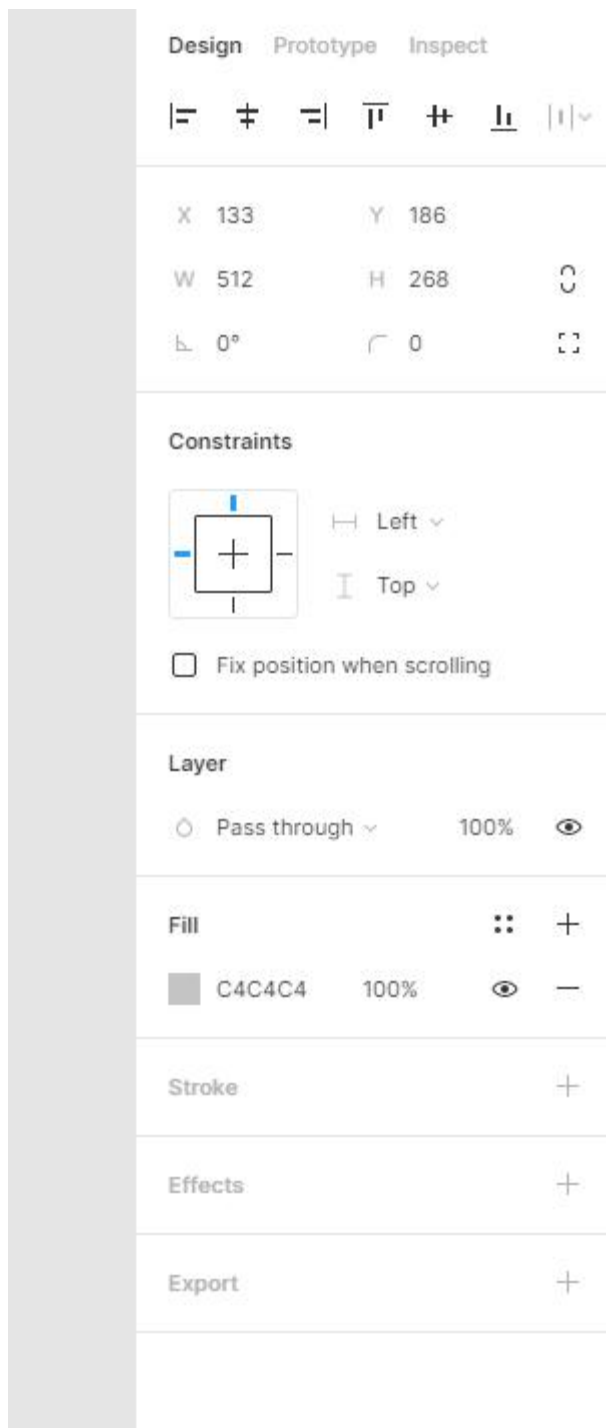
선택해서 프레임을 늘릴수도 있다. FHD 표준이 1920*1080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주도록 하겠다. 만약 UHD 로 짤다면 그렇게할수도 있다.



사각형 툴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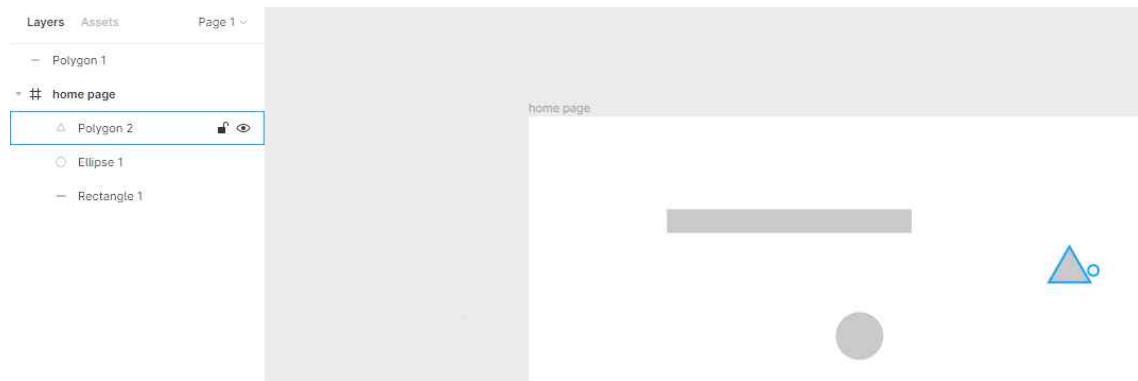
그러면 오른쪽에 패널이 그에 맞춰 생긴다.



그러니깐, home page 프레임 클릭하면 그에 맞는 오른쪽 패널이,
사각형 클릭하면 그에 맞는 오른쪽 패널이 나오는 것.
하나씩 눌러보자.

정렬, 위치, 위스, 하이트, 앵글, 코너 래디우스 이걸 끝에 원형으로 할건지 아닌지
레이어, 색은 뭘 채울건지
프로토타이핑도 할 수 있고

왼쪽 패널 보면 나의 레이어와 에셋이 있다.
내가 점점 많은 걸 만들수록 채워질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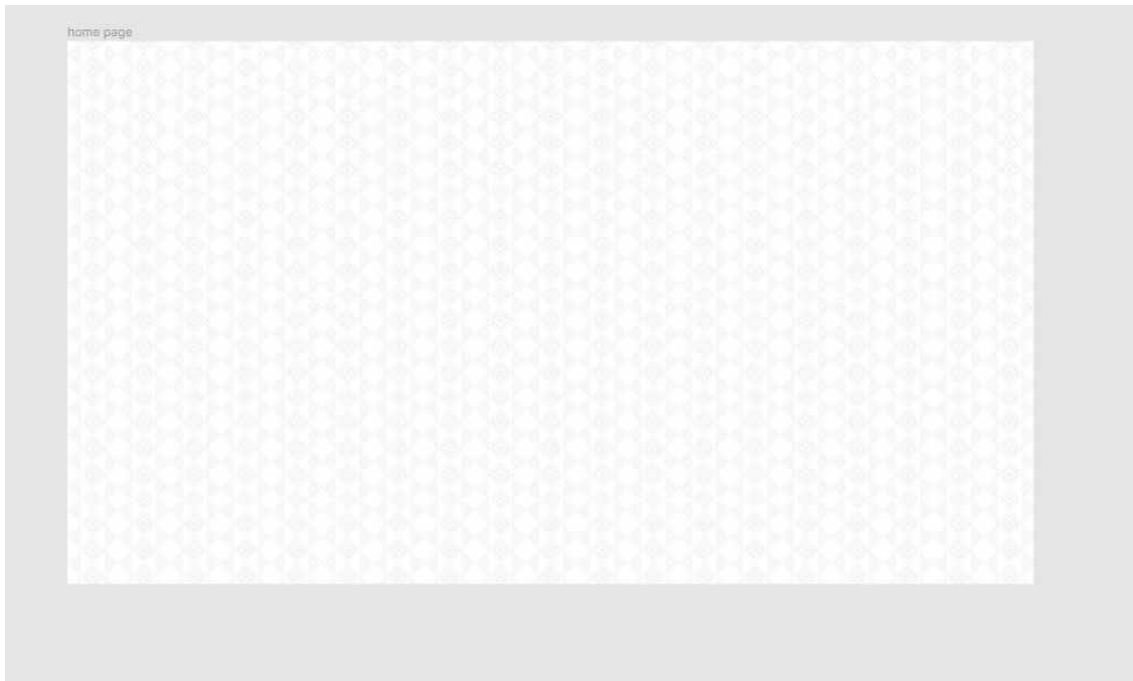
이 부분은 각종 툴들, 그리기 도구라던가, 포토샵 써본사람은 아는 펜툴도 있고, 타이핑 툴도 있음

이제 한번 둘러봤으니 디자인이라는걸 한번 해볼거야. 피그마의 모든 걸 알려고 하지 마라! 그건 끔찍한 디자이너가 되는 길이다. 파워포인트의 모든 기능을 안다고 피피티를 잘 만드나? 보노보노 피피티를 생각해보라. 굉장히 많은 기능을 넣었다. 확실히 파워포인트를 잘 아는 건 맞다. 그러나 그건 제대로 된 디자인이 아니다.

일단 웹디자인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볼건 뭘까? 맨 위에 네비게이션이 있는거겠지. 탭 네비게이션이라고 하는데 왜 위에 둘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위에있는걸 먼저 보기 때문이다. 또는 백그라운드부터 시작하기도 한다.

일단 우리가 참고할만한 유아이 디자인이 있으면 좋겠지? UI Goodies 라는 사이트에 가보자. 여긴 유아이 짜는데 도움될만한 것들을 모아놓은 사이트이다. 왼쪽 네비게이션에서 패턴 및 백그라운드라는 탭을 클릭하면 내가 참고할만한 백그라운드, 패턴이 있다. 우린 이 중에서 subtle patterns 라는 걸 써보자. 클릭하면 프리뷰로 뒤에 적용된것을 볼 수 있음
세번째 탭 에서 그릭 바스 패턴이라는걸 써볼것
다운로드하고 압축풀고

프레임 클릭해보자. 왼쪽에서 fill - solid에서 이미지로 바꿈
fill 이라고 하지말고 tile이라고 하면 사이즈 조절가능. 늘렸다 줄였다 해보자. 400 대 400이 제일 좋은듯. 물론 익스포즈, 콘스트라스트, 사투레이션 템퍼리처 등 세부적인 조절도 가능하다.



이제 타입 툴을 건드려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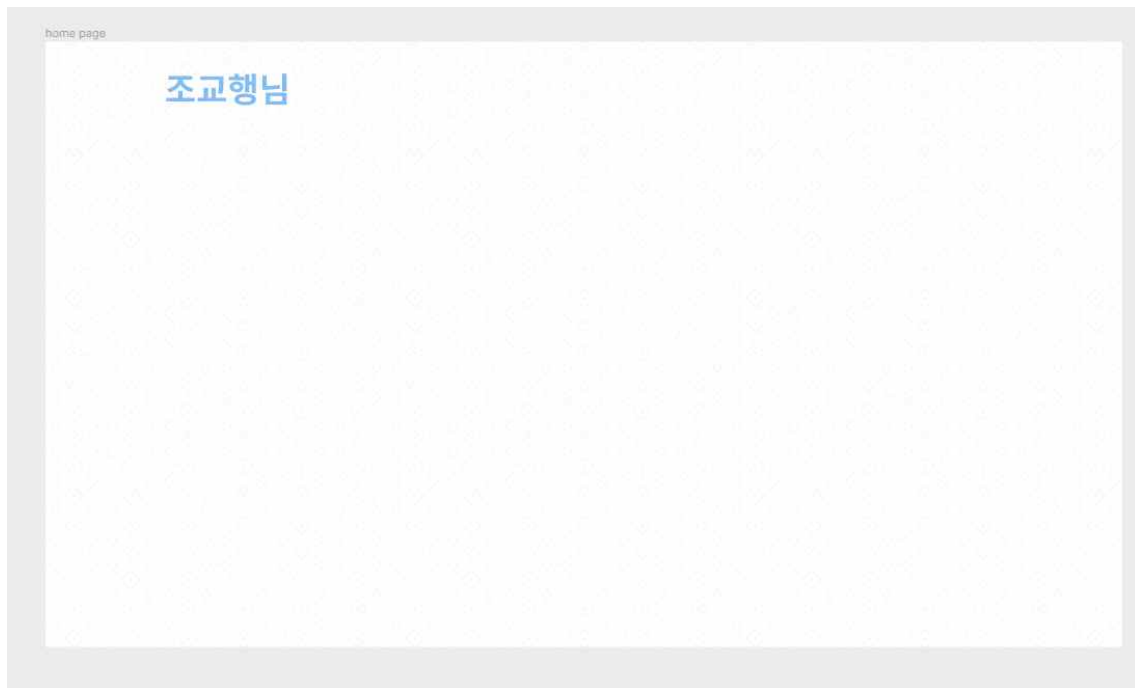
폰트는 우분투로 바꾸고, 사이즈도 바꿀 수 있고

사이즈 클릭해서 키보드 위아래로 클릭하면 글자도 바뀌고

볼드체로 할수도 있겠지?

컬러도 선택가능하고 헥스코드를 넣을수도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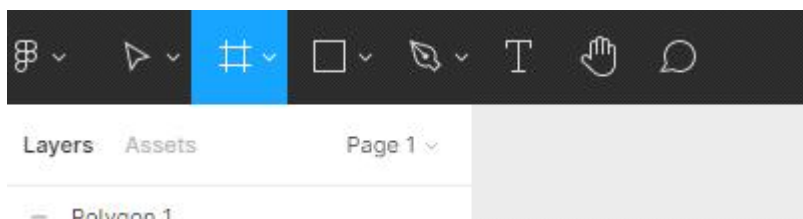
위치는 여백을 좀 줘서 다음과 같이 만들어봤다



이제 네비게이션을 만들어보자 보통 타이틀 바로 옆에 있는데
원래 타이틀과 네비게이션은 구분되어야된다. 제일 쉬운게 색깔을 구분해주거나
볼드를 해제해주거나 글자를 작게해주거나하면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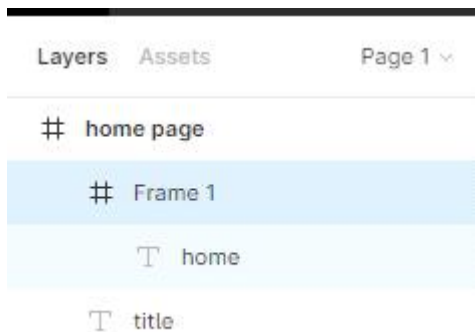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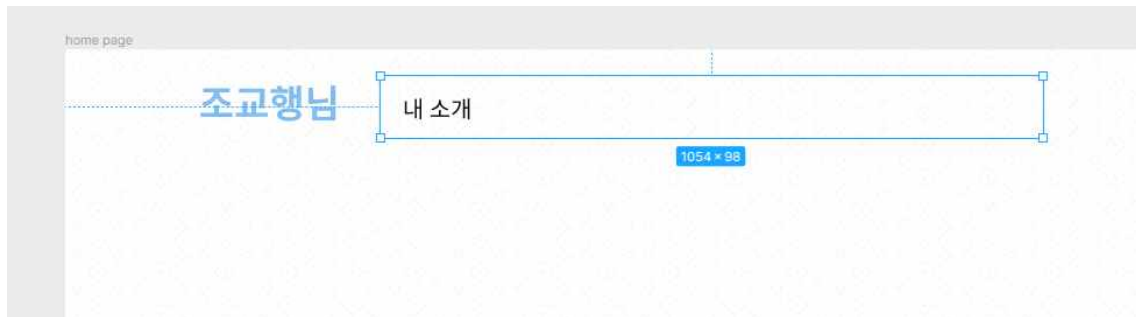


우린 오토레이아웃 기능을 써볼것인데



프레임 클릭하고

영역 지정



프레임 안에 홈이 있음

프레임 클릭하고 shift + a 하면 오른쪽에서 오토레이아웃 활성화됨



방향 설정 가능.

10은 각 아이템별 픽셀간격을 말함



ctrl + v 아니고 ctrl + d 하면 바로 옆에 간격맞춰서 복사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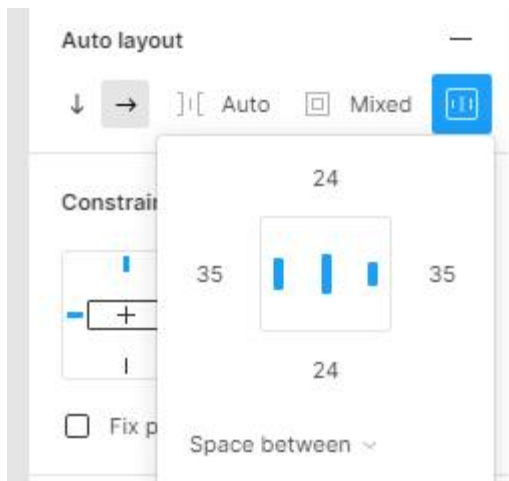
그리고 이제 10에서 다른 숫자로 키보드 화살표를 이용해 늘려주면

만약 버티컬 디렉션을 아랫방향으로 설정하면



짜잔 다음과같이 변함
이 경우는 모바일에 훨씬 좋겠지?

근데 우리가 프레임 크기를 늘린다고 글자도 똑같이 늘어지진 않는다.



이렇게 맞춰주면됨. 센터를 클릭하고, 스페이스 비트윈으로 바꿔주는거임

그러면 간격이 숫자가 아니라 오토로 설정되고, 늘어남.

만약 오토 레이아웃이 없다면 간격을 일일이 맞춰줘야되는데 이 신박한 기능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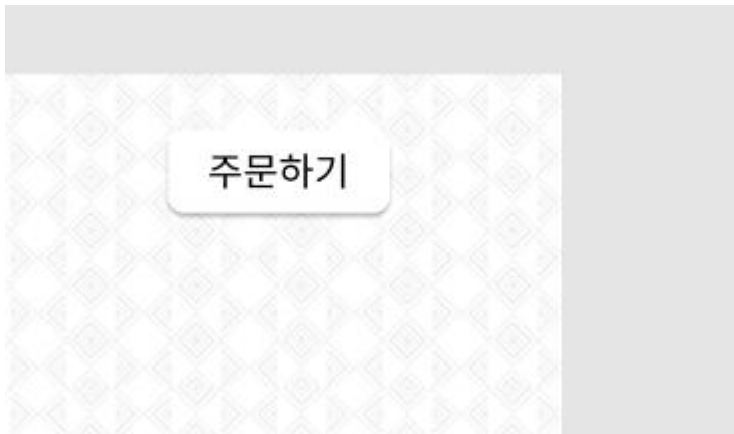
이제 자세히보면, 왼쪽에는 적당한 여백이 잡힌 것 같은데, 오른쪽은 안 그렇다. 그래서 오른쪽에도 적절한 여백을 설정해 줄 것이다. 그래서 진짜 사각형 버튼을 만들어보자.

참고로, 스페이스 누른채로 화면 누르면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다. 핸들틀이 되는것임. 핸들틀을 일일이 클릭해줄 필요가 없음



줌업해보면 래디우스 할 수 있는 작은 점 네개가 나옴. 잡고 땡기면 됨

쉬프트 눌러서 사각형과 텍스트를 동시선택하고 shift + a 하면 auto layout 됨
그러나 크기가 변하면 주문하기 글자는 안 따라오므로
아까 했던것처럼 얼라이먼트와 패딩 버튼 클릭하고 가운데 해주고 스페이스비트윈
하면 버튼 작아질때마다 따라옴
이제 오른쪽의 effect 버튼 클릭해보자.



그림자가 생긴 예쁜 아이콘 만들어짐. 물론 다른 효과도 가능함.
이펙트 보면 drop shadow 만 있는게 아님.



새도우 효과를 좀 더 세부적으로 조정해본 경우.
엑스 와이로 세도우 방향을 주고, 블러를 2로



그러면 왼쪽도 여백생겼고 오른쪽도 여백생겼음
fill 로 버튼 색깔도 지정했음

이제 해볼건 headline 그리고 sub-headline 이다. 즉, 사이트에 대해 메인페이지에, 이 사이트가 뭐하는건지 확실히 알만한 문구가 나와야된다. 그것은 한눈에 알수 있도록 명료해야한다.

헤드라인은, 설명하면 안된다. 내가 할 수 있는 기술을 나열하면 안되는것이다.

ex) 저렴한 가격에 React 개발 해드립니다.

좋지 않다. 리액트라는 기술나열이기때문.

더 안좋은것

ex) React UI/UX design services

굉장히 좋지 않다.

이건 어떤가

ex) We make your business look great

훨씬좋다. 기술에 대한 나열이 아니라 슬로건이기 때문.

조교행님

내 소개

배워보자 웹개발

줄간격을 설정해 준 경우. 엔터쳐서 띄우지 말고, line height로 맞추자.



이 경우, 왼쪽 여백에 조교행님과 아는게 없어도 부분이 똑같은 여백을 두고 시작하기때문에 훨씬 보기 좋다.

만약 이 경우라면?



이상할것..



역시 이상함. 따로 의도한게 아니라면



이렇게 두는게 훨씬 깔끔함

그 다음 sub-headline이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됨. 헤드라인의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면 좋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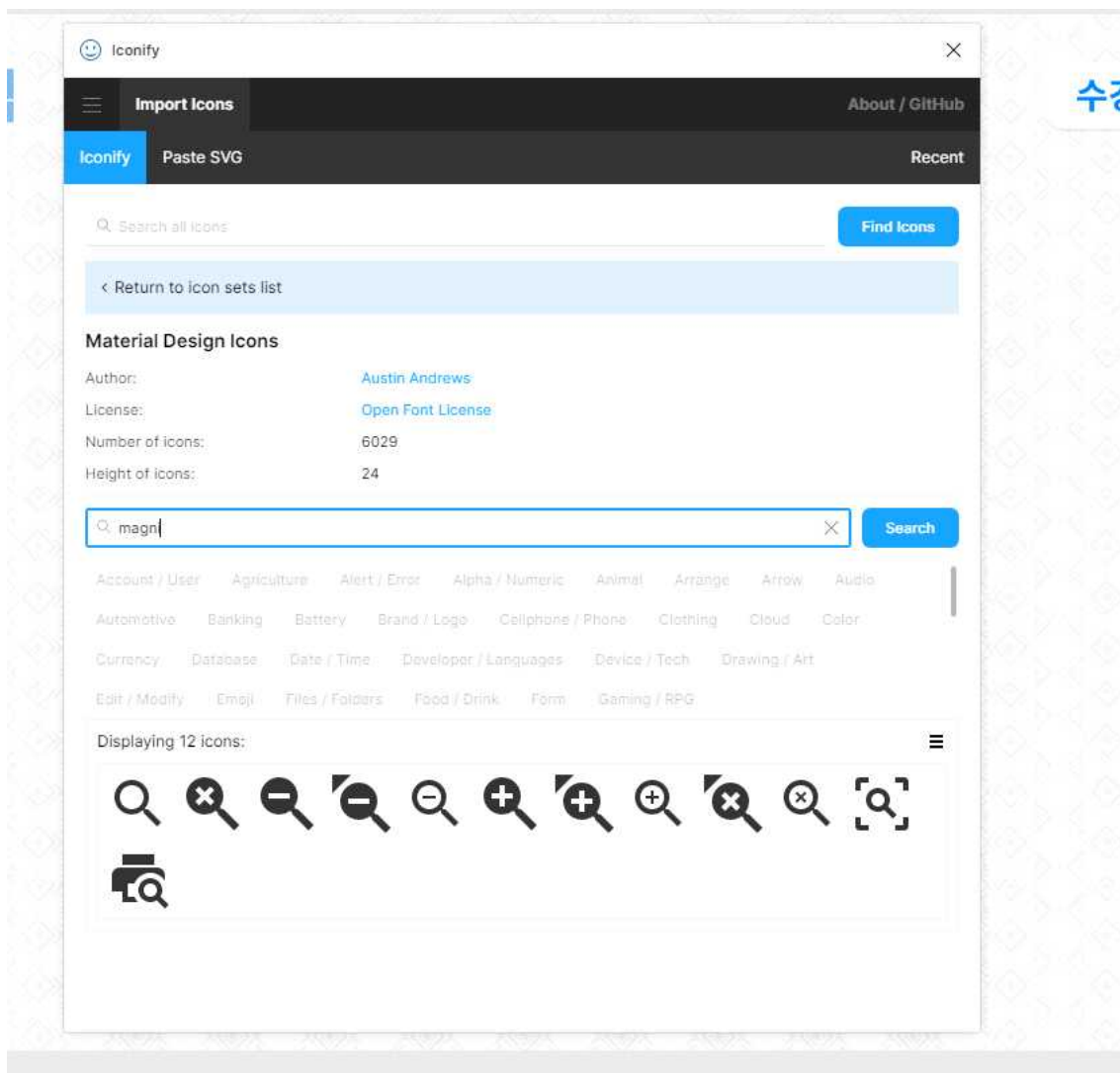
글자는 당연히 더 작게 해야할것이고



이제 플러그인을 추가해볼건데

Name	Creator	Last updated	Installs
 Icons8 Icons <small>One of the largest and most consistent icon collections around without ever needing to leave Figma! 170,000 icons in 25 styles, hand-crafted pixel-perfect PNG and SVG set.</small>	Icons8	4 months ago	166k + Install 166k
 Iconify <small>Import Material Design Icons, Font Awesome, Javi Icons, EmojiOne, Twitter Emojis and many other icons (more than 60 icon sets containing over 50,000 icons) to Figma document as...</small>	Vjacheslav Trushkin	last year	514k + Installed 514k
 Material Design Icons <small>Import your fav icons to the entire Material Design Icons library. 27,000 new icons, available in PNG and SVG. Search icons by name or scroll through the entire list. Filter by category...</small>	Icons8	4 months ago	359k + Install 359k

iconify 라는걸 설치했음



돋보기를 검색한 경우. 아이콘의 경우엔 일일이 만들수도 있지만 그러지마라. 그냥 남들이 만들어놓은 수많은것들을 가져다가 쓰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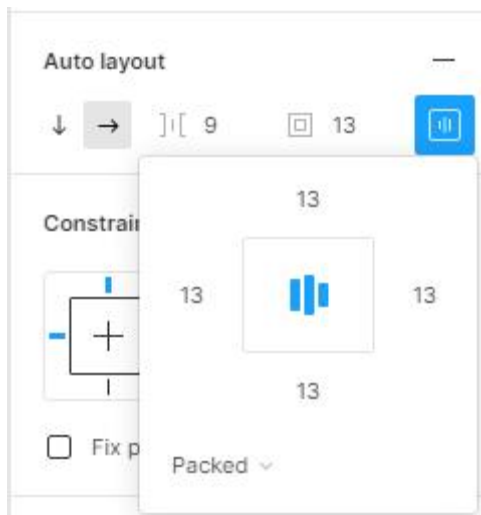


버튼 색깔의 경우, 다른 부분에서 쓰인 적이 없기때문에 강조를 위해 꽤 괜찮은 색깔이라고 판단된다.

추가로, 오토레이아웃 지정했고 그림자 이펙트 주고 래디우스 해줌.

근데 문제는 버튼 늘어날 때 돋보기가 중앙으로 안따라온다는것인데

오토로 하지말고 센터로 맞추고 간격을 9정도로 한 다음 패딩을 바꿔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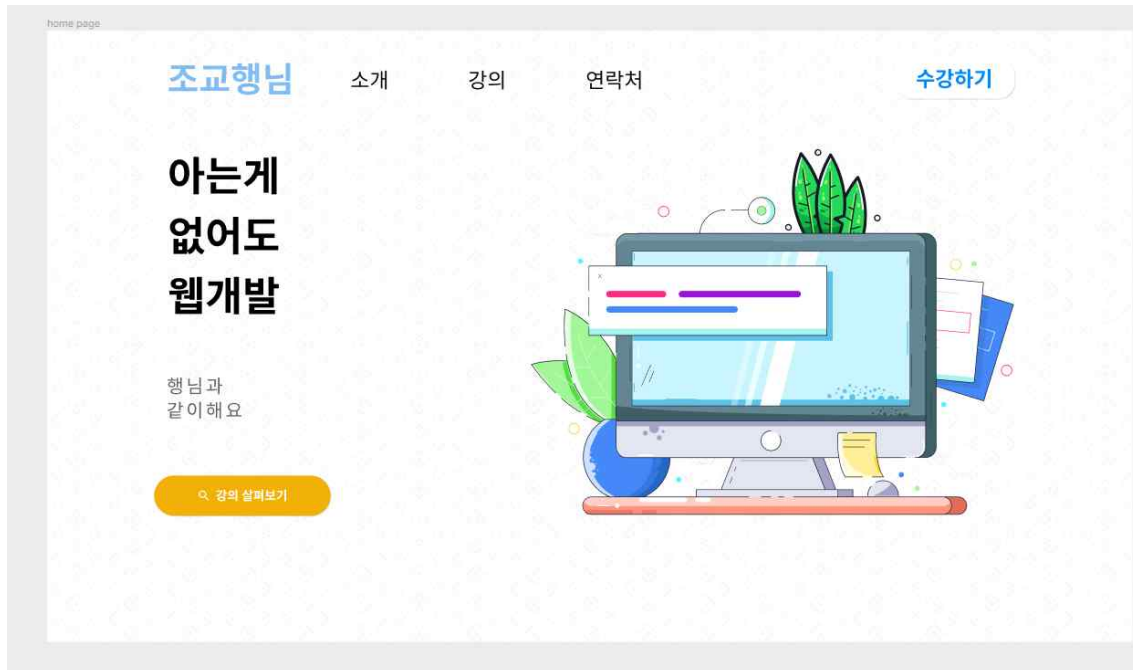


그러면 크기를 늘릴때마다 돋보기도 따라서 움직일 것

물론 버튼 색깔이 맘에 안들면 바꾸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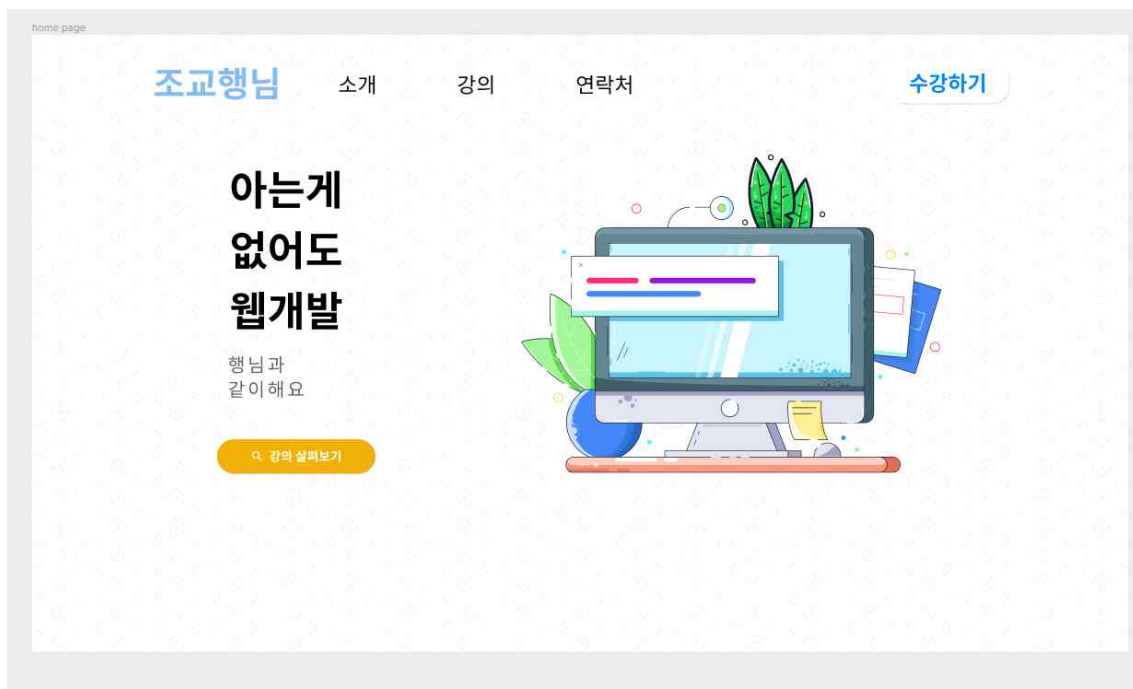
그럼 저 오른쪽 거대한 공간에는 뭘 넣으면 좋을까? 사진을 넣을수도, 애니메이션이 들어갈수도 있다.

ui goodies 를 통해 뭐가 좋을지 찾아보자. 일러스트레이션 - free illustrations by ~~~
해서 그림 추가할때는 항상 shift 누르고 해야 안 깨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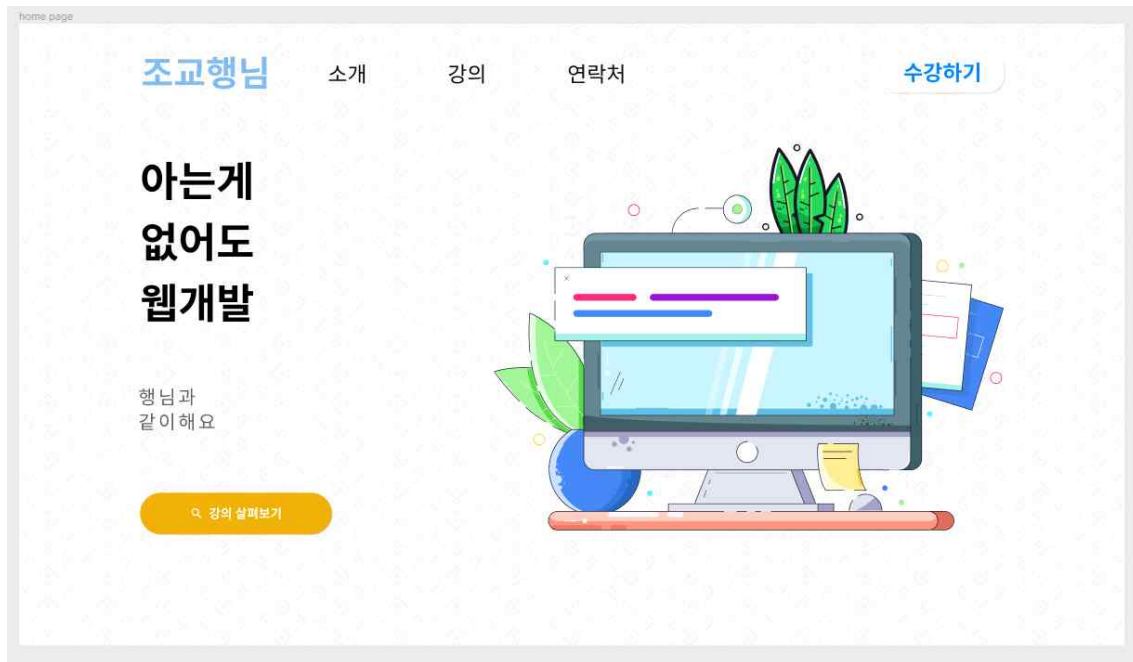
이 경우, 그림이 딱 알맞게 자리잡았다. 노란버튼 위치와도 맞고, 수강하기버튼과도 맞다.

아니면 아예 둘다 뺄수 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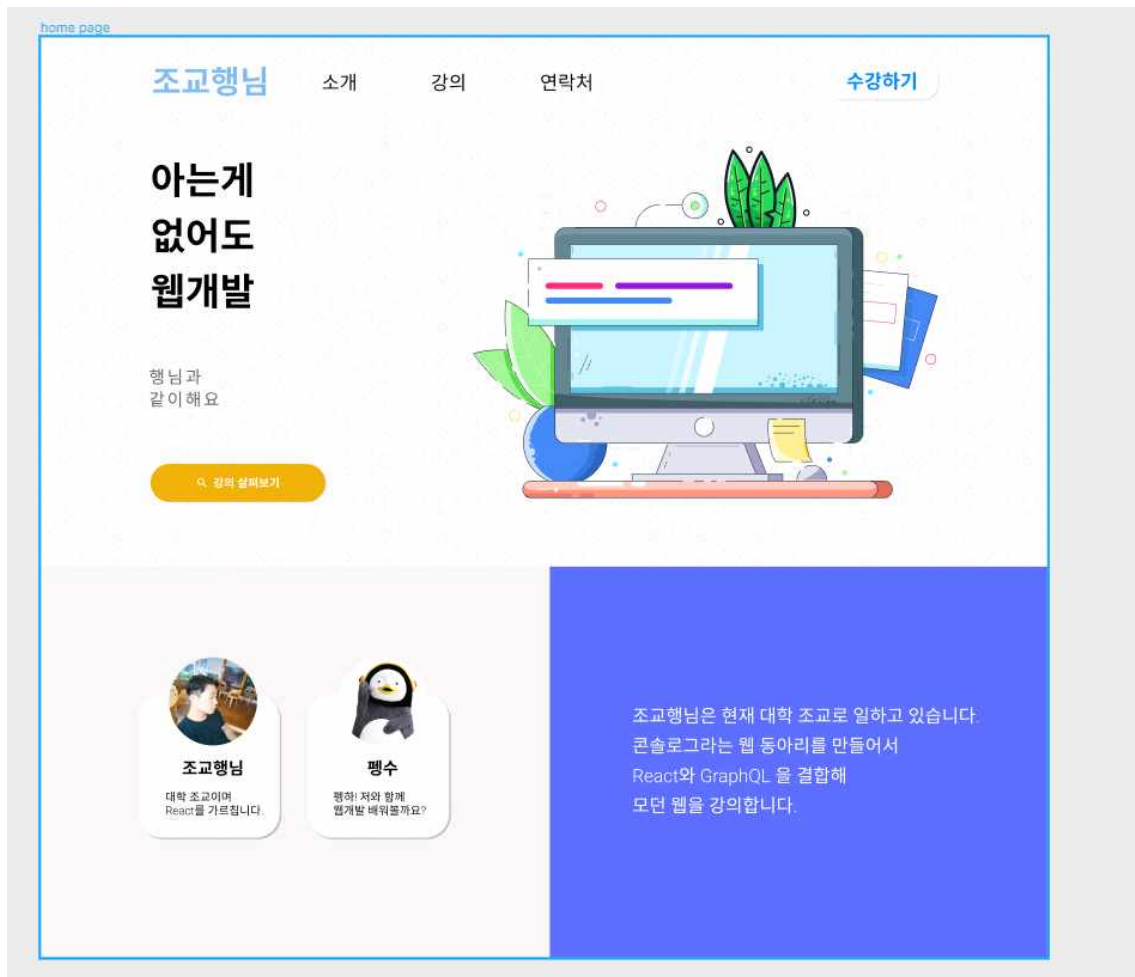
이런식으로. 근데 이 경우 위에 네비게이션과 안 어울리니깐 양쪽에 여백을 더 주고 뺄수도

있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웹 디자인관점에서, 보통 스크롤 내리면 뜨는 상세소개 부분이라던가가 있을 수 있을것. 각종 플러그인과 기능들을 배워보는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건 기존의 성공한 사이트들을 많이 참고 해보는것이다.



이런 식으로 완성해보았다.

이제 자주 쓸 것 같은건 컴포넌트로 만들어야한다. 뭔소리냐, 수강하기 버튼을 예로 들면, 또 쓸것같은 버튼이다.

오른쪽 클릭: create component

이 경우 뭐가 좋냐면



한번에 바뀐다. 즉, 버튼별로 일일이 찾아서 수정해줄 필요가 없다.



자식에서 바꾸는순간 그 부분은 적용이 풀린다.



이런 식으로. 지금은 야호라는 글자와, 색깔을 자식에서 바꿔줬기에 그 부분만큼은 부모와 독립된 것.

컴포넌트라도 자식이면 독립되어 작업할 수 있는것.



헤더 전체를 컴포넌트로 만들수도 있다.

이제 두번째 페이지를 만들어보자. 약간의 프로토타이핑을 적용해볼 것이다.
강의 부분을 작업해보자.

추천 플러그인: lorem ipsum, unsplash

강의

조교행님 소개 강의 연락처 수강하기



조교행님의 JavaScript, TypeScript 강의입니다.
언어의 기초를 다져야 React를 배울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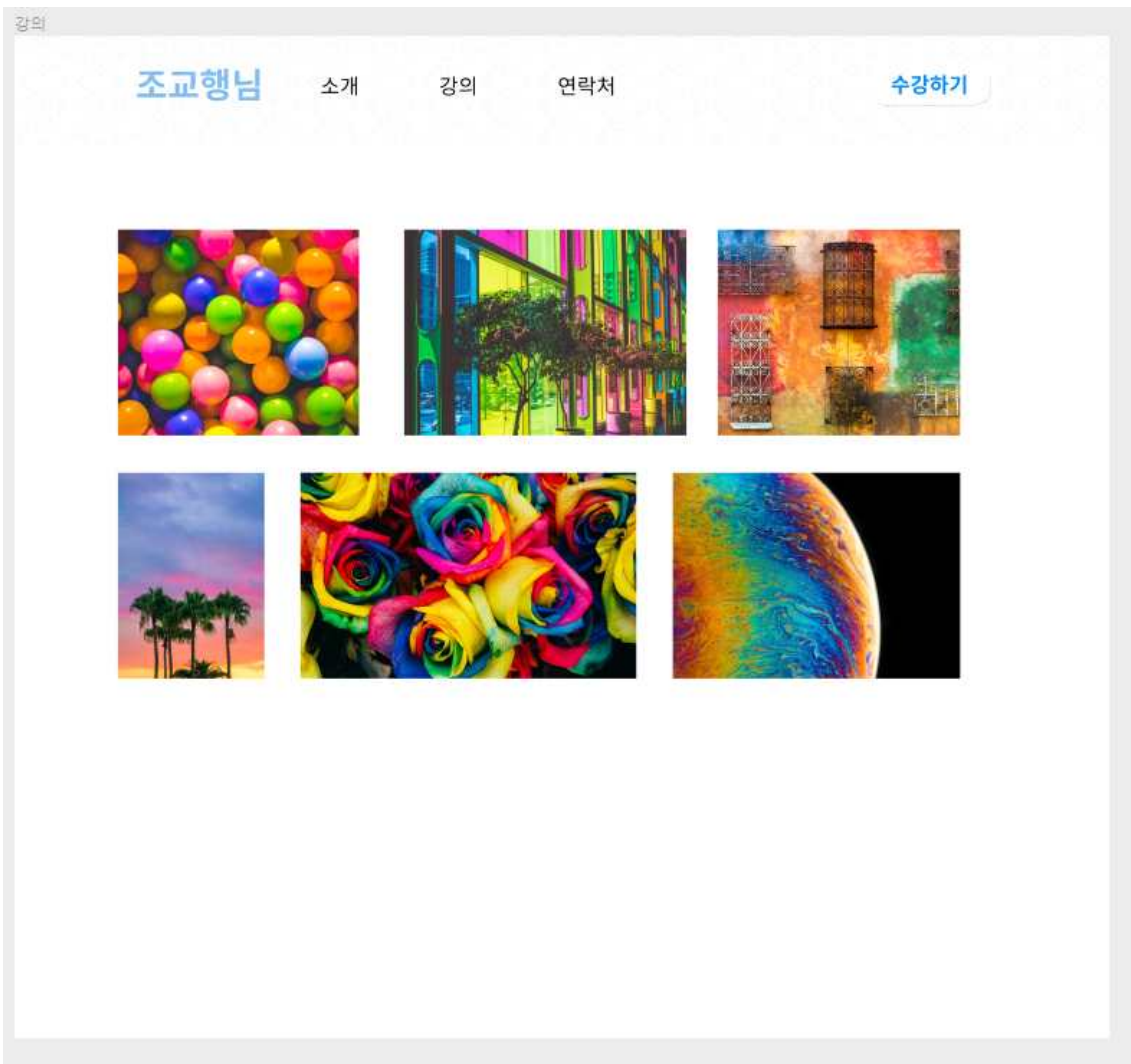
Dependencies: 없음
난이도: 보통



React를 통해 화면을 만듭니다.
함수형 컴포넌트인 Hook 을 사용해볼까요?

Dependencies: JavaScript, TypeScript
난이도: 보통

이런식으로 해봤는데 안예뵌수도 있다. 이건 툴을 사용 못해서 그런게 아니라 UI 디자인을 공부하지 못해서 그렇다. 본질이 없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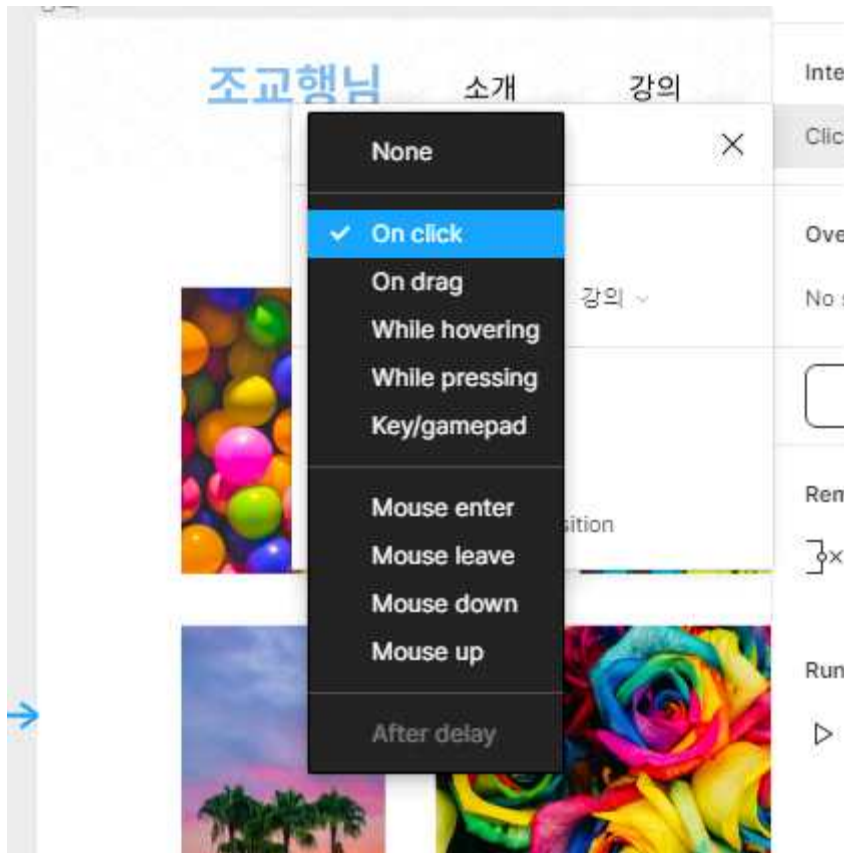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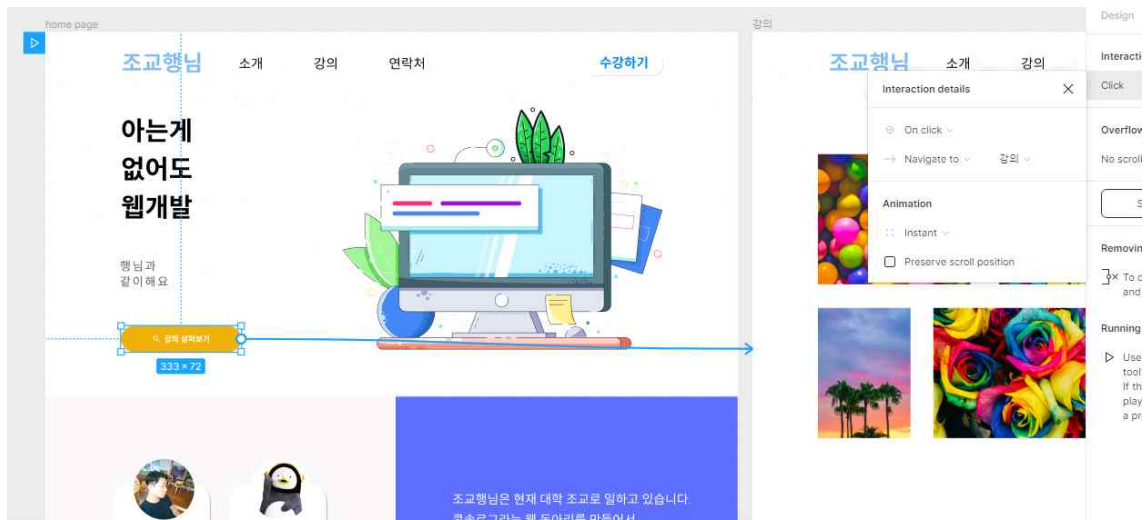


이런식의 카드형식 배치도 재미있을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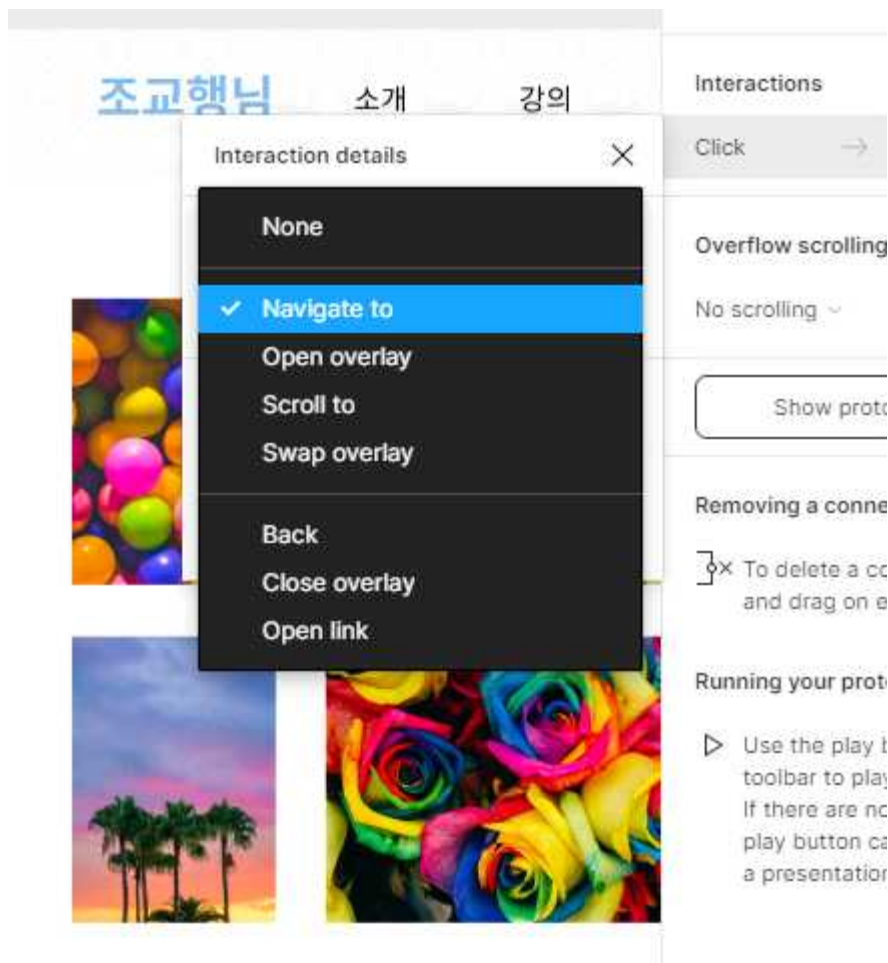
자 그러면 이정도로 하고, 내가 강의를 클릭했을 때 어떻게 두번째 페이지로 갈 수 있을까?
프로토타입을 해볼 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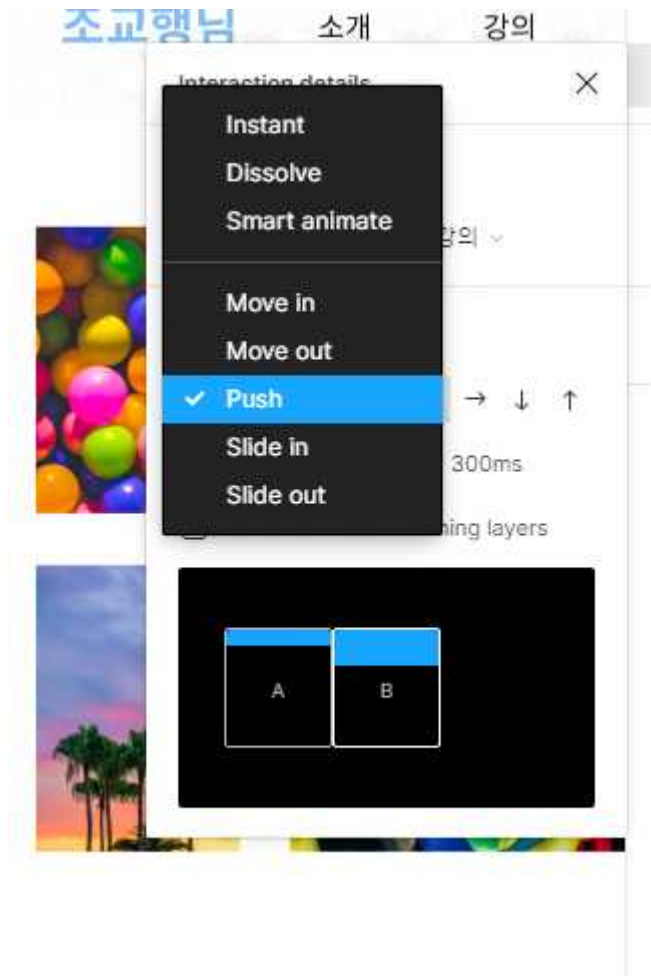
버튼 누르고 프로토타입 눌렀을 경우, 오른쪽에 보면 동그라미 하나가 생김
땡겨서 강의 화면으로 이어줘보자. 여기서 이 동그라미는 여러개 프로토타입 만들 수 있다.
하나만 만들수있는게 아님



내가 이 버튼에 어떤 행동을 해야 이게 보이는지 선택할 수 있음



클릭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어떤 애니메이션 효과를 보여줄것인지.

여기선 PUSH 로 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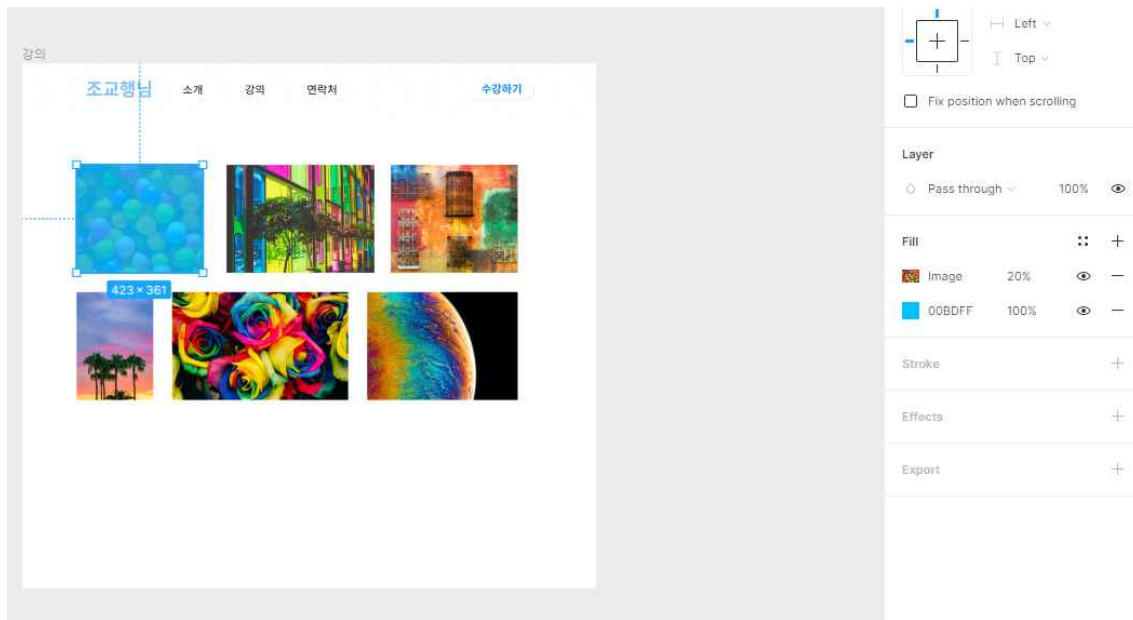
그리고 그 애니메이션이 몇 밀리초에 걸쳐서 나타날것인지도 선택 가능

위에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면 테스트 가능함

같은 방식으로, 위쪽에 있는 강의 탭도 바꿀 수 있겠지?

애니메이션기능중에 SMART ANIMATION 이라는 게 있는데 매우 강력하다. 이건 자동으로 해주는 것

그 다음, 호버 기능 써보자. 일단 이 페이지를 복제하고 호버 설정해보자



파란색을 주고 원래 사진을 20%로 설정한 경우
여기에 돋보기까지 추가하면
올릴 때 돋보기가 보이게 할 수도 있다.

그럼 클릭했을때 새로운 화면이 뜨게 할 수도 있겠네
물론이다. 호버 말고 클릭일때의 페이지를 추가하면 된다.

화면 전체를 복사하고
클릭했을때 짤